

제24장 마게도냐와 아가야

1. 복음의 확장: 오론테스 강에 있는 안디옥은 구브로와 남부 갈라디아 복음 전도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은 바울이 그의 다음 전도 여행지로 생각 중에 있던 에게해 주변 지역의 복음 전도 기지로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서로 계속 존경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전도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상호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인 실라를 마음에 맞는 동역자로 대동하고 남부 갈라디아를 거쳐 서쪽으로 여행하면서 그와 바나바가 최근에 그곳에 세운 교회들을 재방문하였습니다. 이런 교회들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의 고향(루스드라)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이 청년은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디모데는 기독교 신앙과 생활에 굉장한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또 하나의 신실한 동반자로 대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아파메아로부터 메안더 유역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에베소에 이르는 길을 따라 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서쪽 코스를 가려는 것이 분명한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것이 제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북쪽으로 발길을 돌려 술탄 다그 산맥을 넘어서 필로멜리움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비두니아 방향 북서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비두니아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들과 회당들이 있는 큰 도성들이 있었기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비두니아 국경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쪽으로 돌아 에게 해안에 이르러 먼저 드로아에 귀착케 된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 밤에 환상 중에서 바울은 그와 그의 동료들이 북쪽 에게 해를 건너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곳까지 여행하던 중에 누가가 전도 여행의 동료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틀 후 빌립보의 로마 식민지 항구인 네압볼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빌립보 도성에서 점쟁이 노예 소녀에게서 '점치는 악귀'를 내쫓아 버린 죄목으로 인하여 두 선교사는 약식 재판에 의해서 관원들의 매를 맞았고 하룻밤을 그곳 유치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소유주들은 '복채'를 착취하여 얻던 수입원을 놓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일행을 고소하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떠났는데도 누가는 빌립보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엔게디를 따라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여행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들이 몇 주간 머무르는 동안에 그곳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

습니다. 바울에게 호의를 보였던 시민들이 집정관 앞에 끌려 나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을(이들은 가이사사의 명령을 우롱하고, 그의 라이벌 황제인 예수라는 사람을 선전하였다<행17:5-7>)는 명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바울의 친구들은 그와 그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 급히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내보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운동들-그 성격이 다소간 ‘메시아적인’- 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악평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그 메시아적인 운동들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들에서 공중 질서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한 요인이 되었고, 로마와의 화친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책임 있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운동들을 개탄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편지들은 바울이 그들의 도시를 떠난 지 몇 주 만에 기록되었거나, 혹은 길어야 몇 달 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2. 마게도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뢰아로 옮겨져, 그곳에서 해안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배를 타고 아테네 이르러 그곳에서 그와 함류하기로 되어 있는 그의 동역자들을 기다리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아고라에서 만났던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러스 학파들을 포함한 아테네 사람들을 만나 논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숭상하며 떠돌아다니는 사람과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원칙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근거하되 여러 가지 면에서 헬라의 개념이나 신앙을 생각나게 하면서, 한 분이신 최고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에 대하여 말하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3. 아가야: 고린도는 동쪽과 서쪽에 사래크와 고린도 만에 위치한 항구들을 낀 고린도 지협에 있는 큰 항구 도시로서 남북 육로로 통하는 교차로에 위치하였으며, 초기에는 연안의 상업 도시로서 아테네와 경쟁을 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주전 146년 에게 동맹에 의하여 일어난 반역이 무미스가 인솔한 로마인들에 의하여 진압됨으로써 멸망하였습니다. 그 후 약 1세기 동안 주전 40년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줄리어스 시이저가 재발견하여 로마의 식민지로 귀속시켰습니다. 주전 27년에는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회복이 되자 곧 이전에 누리던 경제적 부를 다시 얻게 되었고, 또 이전의 무절제한 성적 방종의 평판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자 곧 고린도의 이곳저곳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새로운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본도 사람 유대인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주후 49년 글라우디오의 로마 추방령을 받고 고린도에 거주를 옮겨 왔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처음 며칠 동안 바울은 이 직업이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자’ 혹은 ‘가죽 직공’으로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실라와 디모테가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와 그곳 교인들이 보낸 선물로 바울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도 그의 직분에만 전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직분은 회당에서 몇 주간 계속되었는데, 전기와 비슷한 소요 사태가 발생하여 바울은 회당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개종자들 중에 한 사람이며, 아마 로마계 고린도 시민인 듯 한 유스도라는 사람이 회당 가까이 있는 그의 집을 바울의 숙소로 정하여 바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온 지 1년도 채 못 되어서 아가야의 새로운 총독이 그 도시에 부임하였습

니다. 갈리오는 원로원 세네카의 아들이었으며, 철학자 세네카와 멜라의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가리오의 총독 임기 중에 틀림없이 그의 가장 인상적인 로마 재판에 대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갈리오가 그 지방에 도착한 지 오래지 않아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행 18:13)"고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갈리오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그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 문제에 대해서 재판관 노릇을 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고소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불법적인 종교를 전파한다는 항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소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것의 가르침이나 전파가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로마 제국의 법의 인정과 보호를 향유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보기에는 아무리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로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문제는 유대 율법에 관계가 될 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 버렸으며 회당장이 방청객들에게 구타를 당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해 버렸습니다.

그 판정이 그의 후임자들에게 하나의 선례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 후 몇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집권자들의 중립적인 호의 속에 그의 사도로서의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갈리오가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을 목살하였던 단순한 그 사실은 클라우디오가 통치하던 마지막 해와 그의 후계자의 임기 초기에 기독교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였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